

# “박홍 총장 ‘주사파’ 발언” 보도 분석

—신문 보도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백 선 기

## 1. 서론

1994년 7월 18일, 대통령과 일부 대학 총장들이 나눈 오찬 간담회에서 박홍 서강대 총장이 행한 발언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문을 가져온 바 있다. 그는 대학교 및 대학생들, 그 가운데 운동권 학생들에 대해 말하는 가운데, “학생 운동을 북한의 주체 사상(主體思想)을 신봉하는 ‘주사파(主思派)’ 학생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이들은 “남한의 ‘사노맹(사회주의 노동자 동맹)’과 북한의 ‘사노청(사회주의 노동자 청년동맹)’과 연계되어 있으며, 나아가 김정일의 지시를 받고 있다”는 발언을 하였다. 이는 “대학내의 학생 운동권이 북한과 직접 연계가 되어 있다는 점과 그들이 김정일의 지령과 지시하에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 대한 적시로서 사회에 미친 영향은 심대했다고 하겠다.

더욱이 당시의 상황이 ‘갑작스런 김일성의 죽음’으로 인하여, 예정되었던 ‘남·북 정상 회담’이 결렬되었고, 김일성 장례식에의 조문 참여 문제 등으로 정치적 및 사회적으로 논쟁이 한창 일어난 시점이었다. 나아가 일부 대학교에서는 ‘김일성에 대한 분향

소'를 설치하고, '김일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린다고 하여 사회 일각에서 우려를 표하던 시절이었다. 이른바 사회적으로 이념 논쟁의 와중에 있었으며, 일정 방향으로의 가다미 잡히지 않고 있던 다소의 혼란스러운 시기였던 것이다.

이러한 민감한 시점에 제기되었던 이 같은 발언은 즉각적으로 관련자들로부터의 지지와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이러한 지지와 반발은 언론에 의해 여과 없이 생생하게 보도됨으로써 우리 사회는 커다란 이념 논쟁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이게 된다. 먼저, 박홍 총장 발언의 직접 대상자인 대학교의 운동권, 이른바 '한총련'은 박홍 총장 발언에 대해 '학생 운동권'을 궤멸시키려는 의도에 의해 제기된 것이며, 그 발언의 근거가 분명치 않으며, 따라서 발언 관련 증거를 명확히 하고, 증거가 없을 시에는 사과하라고 강력히 반발한다. 여기에 '정의 구현 사제단' 및 여러 카톨릭 운동 단체들에서 박홍 총장의 발언이 '무지와 편견'에 의한 발언이며, 순수한 사회 운동 단체에 대한 억압의 일환으로 제기된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왔다. 이에 대해, 박홍 총장의 발언시에 참여했던 대학 총장들 및 서강대 일부 교수들과 동문들은 박홍 총장의 발언이 '용기 있는' 발언이며, 대학내에 침투한 '주사파'를 척결하고자 하는 올바른 행동이라고 지지하며, 일부 단체들이 박홍 총장의 발언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고 강변(향변)하게 된다.

이렇듯이, 박홍 총장의 발언을 놓고 두 가지 대립된 시각이 대두되었으며, 이 둘은 극명하게 대립하게 된다. 그런데, 정부 및 검찰은 박홍 총장의 발언을 기점으로 하여, 대학내의 주사파 세력을 척결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을 계속 표출하고 있으며, 특히 검찰은 '주사파'와 '이북 단체들' 간의 통신 교환 사실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밝힘으로써 박홍 총장의 발언 내용을 지지하는 듯한 인상을 풍긴다. 더욱이 박홍 총장을 '학생 및 재야의 신변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박홍 총장 주변에 삼엄한 경비를 취하게 된다.

이에 관하여, 신문과 방송을 위시한 우리 언론들은 이러한 사안 사안들마다 열면 취재 경쟁과 아울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게 된다. 따라서 온 국가를 '주사파' 사안을 중심으로 하여 심각한 '사상 논쟁'에 휩싸이게 만들어버렸다.

바로 이러한 시점과 상황에서, 우리의 언론들이 박홍 총장 발언과 관련하여 어떠한 자세를 취했는가? 즉 박홍 총장의 발언을 두고, 어떠한 점을 강조하거나 부각시켰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취재·보도하였는가? 그리고 그러한 강조 및 취재 경향은 어떠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점들이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따라서 바로 본 논고에서는, 이와 같은 의문점들을 중심으로, 우리 언론의 취급 태도 및 경향을 살펴보고,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언론 일반보다는, 자신들의 이념적(이데올로기적) 논조가 사안에 반영되는 신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연구 방법

먼저, 분석 대상으로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의 5개 신문을 채택하였다. 서울신문은 정부 기관의 기관지로서 이와 같이 민감한 문제에 대한 정부측의 입장을 파악하기 위해 채택되었고, 조선일보는 우리나라 제1의 거대 신문으로서 보수적 성향(논조)을 지닌 신문으로 알려져 있기에, 이 신문이 지닌 입장이나 경향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선정되었으며, 중앙일보는 신문의 논조적 성격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서 채택되었다. 동아일보는 또 하나의 거대 신문으로서 다소 야당적 및 진보적 논조를 지닌 신문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한겨레신문은 우리의 신문들 가운데 가장 진보적인 논조를 띠고 있는

신문이기에 채택되었다. 즉 이들 신문들이 지닌 논조의 다양성들에 따라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다분히 지니고 있는 '박홍 총장 발언 사안'에 대하여 다양한 접근과 취급 경향들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었던 것이다.

분석 시기는 박홍 총장 발언이 신문에 실린 1994년 7월 19일부터, 이와 관련된 제반 사항들 및 관점(시각)들이 활발하게 도출된 1994년 7월 26일까지의 8일간을 주분석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간을 중심으로 박홍 총장 발언이 시기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나아가는가 하는 추이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박홍 총장 발언' 자체 및 사안의 발단을 제기한 1994년 7월 18일의 대통령과 대학 총장들의 발언에 관한 '담론 분석'을 그레마스의 분석틀을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였으며, 박홍 총장 발언에 관한 신문 보도 추이에 대해서는 관련 신문 보도를 중심으로 '통합체 분석'을 시도하였고, 그 가운데 나타나는 대립되는 주체들에 대해서는 '계열체 분석'을 시행하였다.<sup>1)</sup> 또한 박홍 총장 발언 및 언론에 따른 주체들의 동향과 관계들에 대해서는 그레마스의 '행위주 분석 모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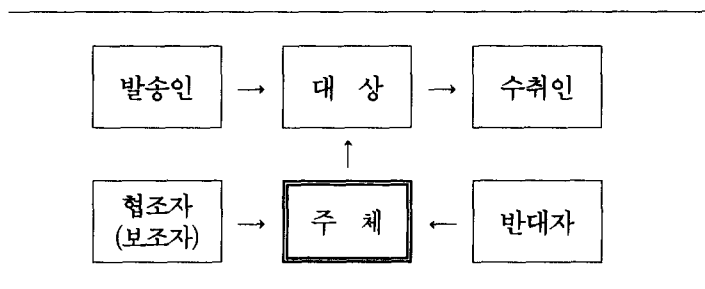
그레마스의 '행위주' 모델은 담론 전체에 등장하는 행위주들의 역할이나 기능을 체계적으로 연계시키면서 전체 담론이 지향하는

1) 기호학 분석 방법에서의 통합체 분석과 계열체 분석에 대해서는 백선기, 「한국 신문의 '학생 가두 시위'에 관한 보도 태도와 그 이념적 배경: 동아·서울신문의 '5·17 사태' 보도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신문연구소 학보』 제26집, 1989, pp. 115~53; 백선기, 「한국 신문의 공정성에 관한 연구: '정총리 서리 폭행 사건' 보도에 관한 기호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와 언론』 제1집, 1992, pp. 181~246 참조.

2) 그레마스의 분석틀 및 분석 모델에 관해서는, 백선기, 「한국신문의 '실명제' 보도에 대한 의미 구조 연구」, 『언론과 사회』 제4호, 1994, pp. 101~37; 백선기·박기순, 「보도·담론·함축 의미: '부산 기관장 모임' 담론의 의미 구조 분석」, 『한국언론학보』 제31호, 1994, pp. 1453~94 참조.

중심 행위나 중심 역할을 밝혀주는 모델이다. 먼저, 전체 담론의 '주체'와 '대상'을 밝혀내어 담론이 표상하고자 하는 중심 주체와 그것이 지향하는 중심 행위 및 또 다른 행위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는 '대상'을 중심으로 대립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협조자'와 '반대자'라는 행위주도 등장하는데, 이는 '주체를 중심으로 도와주는 자'와 '주체에 반대하는 자'로 대립적인 관계를 띠면서 나타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행위주 모델의 분석틀이 형성된다.

〈도표-1〉 행위주 모델의 분석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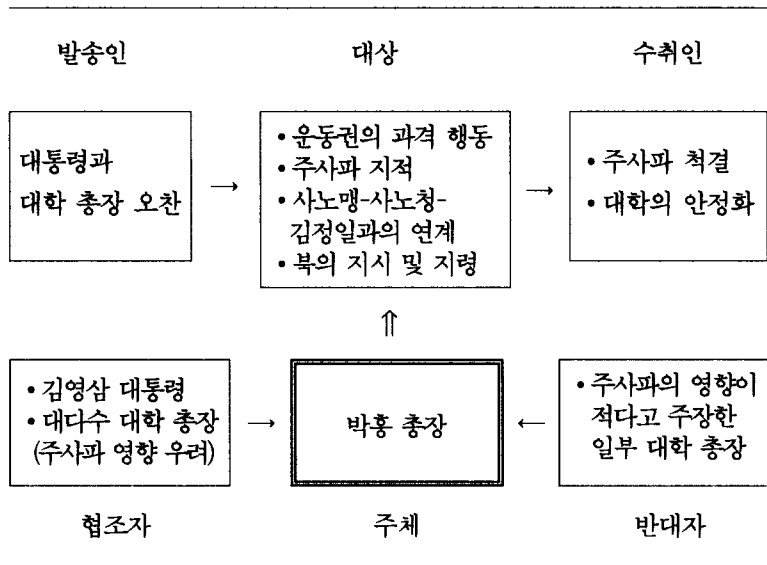
### 3. 결 과

#### I. '박홍 총장 발언' 담론

대통령과의 오찬상에 행해진 박홍 총장의 발언과 다른 참여자들의 발언들을, 그레마스의 행위주 모델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담론 주체인 박홍 총장의 발언은 여러 대학 총장들의 발언들 가운데 일부였으며, '일부 과격 운동권 학생'들에 관한 논의의 연관 속에서 제시되었다.

〈도표-2〉 박홍 총장 발언 담론의 행위주 관계



그리고 박홍 총장 발언의 ‘대상’은 ‘운동권 학생들의 과격 행동’에 대한 지적이었으며, “이들 주사파들이 사노맹(社勞盟)·사노청(社勞靑), 나아가 김정일과 연계되어 있으며” “김정일의 지시 및 지령을 직접 받고 있음”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는 그러한 주장의 예들로 ‘UR 비준 반대’와 ‘미군 기지 반납 운동’을 들고 있으며, 그외의 증거들을 ‘본인이 소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박홍 총장의 발언에 대한 협조자들로는, ‘주사파에 대한 강력 촉구’를 표시한 김영삼 대통령과, 주사파들의 과격 행동을 지적하고 ‘정부가 이들을 힘으로 다스려줄 것’을 제안한 대다수 대학 총장들(고려대·국민대·홍익대 총장 등)이며, 박홍 총장 발언에 대해 다소 이견을 보이는 자들(반대자)로는 주사파가 극소수이며 이들의 영향이 별반 크지 않다고 제기한 몇몇 대학 총장들(경남

대·충남대 총장 등)이 있으나, 이들의 발언 내용 및 의미는 복합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

한편, 이 담론의 대상이 표출되게 된 계기를 준 것(발송인)은 ‘대통령과의 오찬’이라는 모임인데, 이 모임이 담고 있는 상황이 친정부적(親政府的)이라는 의미가 있어, 여기서 행해진 담론들의 성격을 규정 *define*해주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대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수혜자)은, ‘주사파의 척결’과 ‘운동권 세력 약화’ 및 그를 통한 ‘대학의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박홍 총장 담론 자체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것은 주사파와 사노맹·사노청·김정일까지 이어지는 연계에 대한 증거와, 복의 지시 및 지령을 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담론상에서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지속적으로 이 담론이 지니고 있는 성격 및 의도에 대한 의혹과 부당성의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 Ⅱ. ‘박홍 총장 발언’ 신문 보도

### 1) 박홍 총장 발언의 부각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에는 여러 대학 총장들의 발언들이 오갔고, 그들 발언들의 내용도 박홍 총장과 비슷한 것들을 담고 있다. 그러나 우리 신문들은 그것들 가운데 유독 박홍 총장의 발언만을 부각시켰다. 즉 그의 ‘주사파’에 대한 지적, 주사파가 ‘사노맹·사노청·김정일’과 연계되어 있고, ‘복의 지시 및 지령’을 받고 있다는 구체적 발언이 신문의 주목을 받은 것이다.

또한 그만이 지닌 성격 및 경력의 독특성도 이러한 부각을 부추긴 것으로 생각된다. 천주교 ‘사제’이며, ‘교수’이며, 나아가 ‘대학 총장’이고 ‘사회 운동가’인 그의 다소 복잡하지만 매력적인 요소들이 그의 발언에 대해 보다 높은 신빙성을 주게 되고, 따라서 우리 신문들은 다른 어떤 총장들의 발언보다 그의 발언에 주목하

게 된 것 같다. 즉 그의 ‘종교인’이라는 신분과 ‘대학 총장’이라는 직분은 그에게 다른 사람들이 지닐 만한 사심(私心), 이른바 ‘명예욕’과 ‘출세욕’과 같은 것들이 없을 것이고, 따라서 그의 발언이 보다 높은 신뢰감으로 독자들에게 인식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게 참작된 것 같다.

이는 오찬에 참석했던 다른 대학 총장들도 ‘주사파의 과격성’을 지적하였고, 나아가 “이를 정부측이 힘으로써 다스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박홍 총장의 발언만이 집중적으로 보도되었고, 또한 그의 발언에 대한 보도 이후에 계속해서 박홍 총장의 인물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추론 가능한 것이다.

## 2) 신문 보도의 취급 경향 및 추이

박홍 총장의 발언은 ‘발언을 한 행위’와 ‘발언 속에 담겨진 내용’의 두 가지 측면에서 신문의 주목을 받는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 및 ‘내용’에 대한 시각(관점)에 따라, 신문들은 서로 다른 취급 경향을 띠게 된다.

첫째, ‘서울’ ‘조선’ ‘중앙’ ‘동아’의 4개 신문들은 박홍 총장의 발언 행위를 ‘용기 있는 행위’ ‘바람직한 지식인의 행위’ ‘결단에 찬 행위’ ‘시대적 욕구의 표현 행위’ ‘양식 있는 지식인의 행위’라고 규정 *define*하고,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그의 ‘발언 내용’ 자체를 사실 그대로 믿고자 한다. 이에 반해, ‘한겨레신문’은 그의 발언 행위를 ‘편견과 무지의 행위’이며 ‘무책임한 행위’라고 규정하며, 따라서 그의 ‘발언 내용’ 자체를 증거 부족의 이유로 신뢰하지 않으려 하면서, 오히려 그러한 행위가 나타나게 된 ‘배경’과 ‘의도’에 대하여 주목하려 한다.

둘째, 이러한 규정들을 근간으로 하여 4개 신문들은 그가 제시한 ‘주사파의 과격 행동’ ‘사노맹·사노청의 존재 및 과거 행각’



‘김정일과의 연계’ ‘김정일의 지시 및 지령 가능성’ 등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면서 보도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겨레신문’은 ‘주사파와 이들과의 연계’ 주장에 대한 부정 및 ‘김정일 지시 및 지령’이라는 표현의 부적합성 등을 지적하는 보도를 내보낸다.

셋째, 박홍 총장의 발언과 그 증거 불충분에 대해 ‘정의 구현 사제단’ ‘민주당’ 및 ‘재야 세력’ 등이 이의를 제기하자, 이들 4개 신문들은 이들을 ‘주사파를 옹호하는 집단’ ‘당리당락에 이용하는 집단’ ‘친북 성향의 집단’ 등으로 규정하면서 반박하고 있다. 특히, ‘사설’을 통해 지속적이면서도 강력하게 박홍 총장 발언 및 행위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해 반론을 가하고 있다(서울신문, “주사파는 소탕되어야 한다”(1994. 7월 20일자), “‘주사파’를 비호하는가”(1994. 7월 21일자), “누가 옳고 그른지 국민은 안다”(1994. 7월 23일자); 조선일보, “용기 있는 지식인의 역할”(1994. 7월 21일자), “‘사제단’의 편견”(1994. 7월 23일자), “대학생과 주사파”(1994. 7월 24일자), “민주당의 ‘신공안’론”(1994. 7월 25일자); 중앙일보, “누가 박총장을 위협하나”(1994. 7월 23일자), “대학 지키려는 총장들의 의지”(1994. 7월 24일자), “이제 할말은 합시다”(1994. 7월 26일자); 동아일보, “그래도 교수가 나서야”(1994. 7월 20일자), “박총장 발언의 경우”(1994. 7월 22일자), “총장들의 학원 수호 의지”(1994. 7월 24일자) 등의 사설 참조). 그러면서 동시에 박홍 총장을 지지하는 ‘20여 개 대학 총장 간담회’ ‘서강대 경영대 교수 성명’ ‘서강대 동문회’의 지지 성명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특히 ‘20여 개 대학 총장 간담회’는 그것이 행해지기 전(前), 행하는 과정(過程), 모임 이후(以後)에 나온 발표문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이벤트 event’를 3차례의 과정으로 나누어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상세하게 게재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지지자들의 주장이나 성명을 ‘올바른 지식인의 소리’ ‘지성인의 책임 있는 소리’ ‘교권 회복의 계기가 되는 소리’ 등으로 긍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겨레신문은 ‘20여 개 대학 총장 지지문’에 도출된 총장들의 발언들에 유감을 표명하고, 그것들이 담고 있는 발언들과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박홍 총장의 발언과 책임’(1994. 7월 20일자), ‘용기 있는 지식인의 무모함’(1994. 7월 23일자), ‘대학 총장들의 지지 성명’(1994. 7월 25일자)이라는 사설들에서 잘 나타남). 또한 ‘20여 개 대학 총장 간담회’와 ‘서강대 경영대 교수’ 지지 성명들에 동원된 교수들 가운데는 잘 모르면서, 또는 부재중(不在中)에 참여하게 된 인사들이 상당수 있음을 지적하여, 이들 지지 성명이 지니고 있는 ‘의도성’에 관하여 주목하게 하고 있다.

넷째, 박홍 총장 발언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증거’ 부문에 관하여, 4개 신문들은 일차적으로 검찰이 제시한 “한총련과 이북 단체들과의 팩시밀리 교환” “북한 ‘구국의 방송’ 녹취문” 등으로 충분하다고 하고, 이차적으로는 박홍 총장에게 증거를 대라고 하는 요구는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의 발언이 ‘체험적 공감대’를 지니고 있으므로, 증거를 대는 것은 ‘인격적인 모독’이며 ‘최소한의 예의도 차리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그와 같은 증거를 강조하는 집단이나 세력이 지닌 부도덕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겨레신문은 주사파가 북한의 지시 및 지령을 받고 있다는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팩시밀리 교환”이나 “‘구국의 방송’ 녹취문” 정도로는 ‘지령 및 지시’를 받고 있다는 구체적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따라서 증거도 없이 한 발언이라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섯째, 박홍 총장 발언을 근거로 하여, 이들 4개 신문들은 정부 및 검찰에게는 “주사파 및 친북 세력을 공권력을 행사하여 대학 및 사회에서 축출해줄 것”을 요구하게 된다. 또한 대학 및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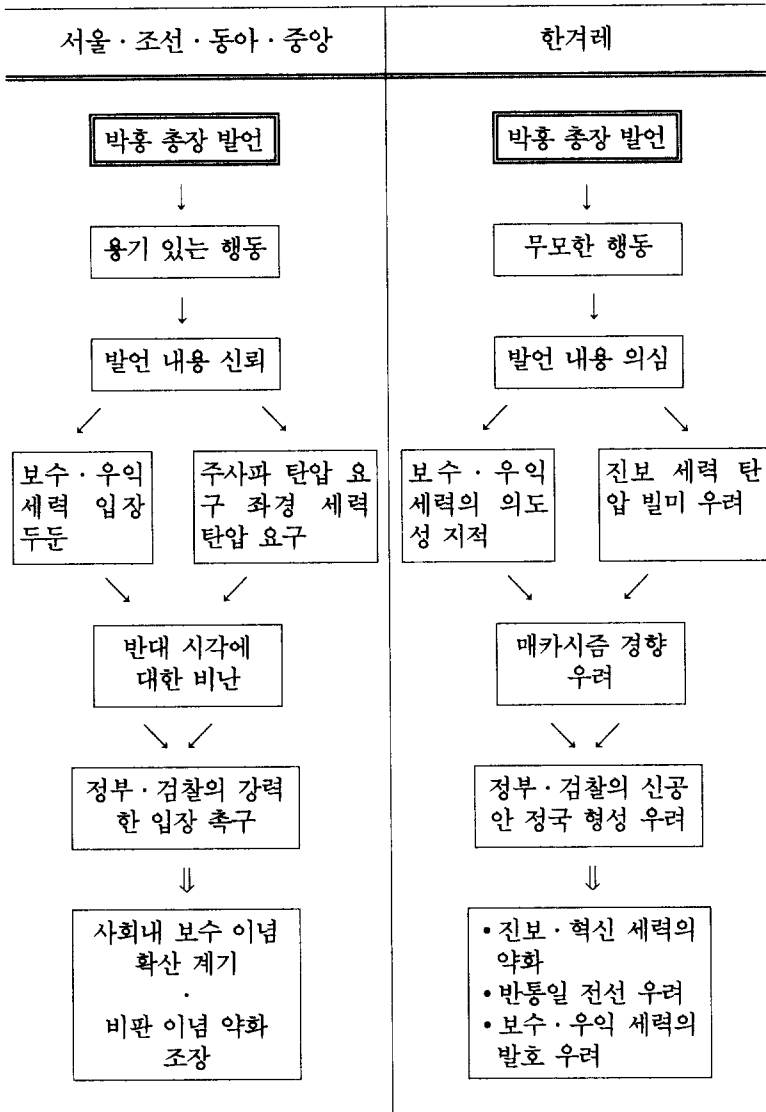
들에게는 “이들 주사파에 대해 단호하게 질책하고, 학사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사파를 대학에서 추방시키라”고 하고, 나아가 사회 일반에 대해서는 “그 동안 침묵했던 우익 보수 세력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과감히 드러내고 단결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겨레신문은 박홍 총장 발언을 기점으로 한 정부 및 검찰의 ‘운동권 학생’들에 대한 탄압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하고, 나아가 새로운 ‘공안 당국’으로의 전개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와 일부 언론(방송 포함)에서 자행되고 있는 경향을 ‘매카시즘 경향’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경향을 경계하고 있다. 나아가 일부 대학 및 사회에서 나타나는 ‘보수성’과 ‘우익성’에로의 회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박홍 총장의 발언과 관련되어 우리 신문들은 자신이 지닌 이념적(이데올로기적) 성향에 따라 뚜렷하게 자신들의 취급 경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도표-3>은 이들 신문들의 보도 경향 및 추이에 대해서 잘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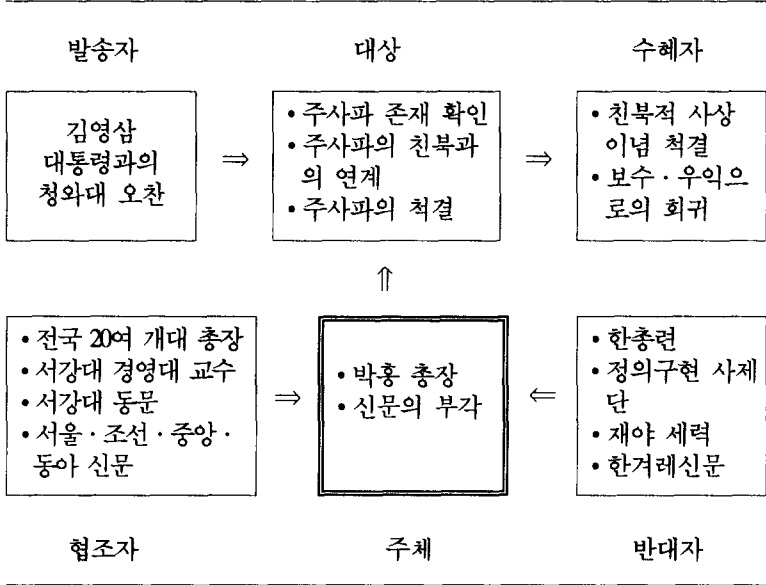
즉 ‘서울’ ‘조선’ ‘중앙’ ‘동아’ 등의 신문은 자신이 지닌 논조들의 차이가 다소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홍 총장 발언으로 야기된 ‘사상 논쟁’ 즉 우리 사회에서는 가장 금기시되고 있는 ‘공산주의’ 사상과의 연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공산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고, 따라서 이를 추종하는 ‘주사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반해 한겨레신문은 이들 4개 신문들과는 다소 완화된 시각에서 ‘주사파’ 및 그것이 지닌 ‘이념적 경향’에 대해 다루고 있다. 따라서 ‘주사파’에 대해서도 ‘통일애의 열정이 있는 집단’일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보다는 오히려 주사파 탄압으로 야기될 수 있는 신공안 정국의 등장에 우려를 표하며, 이를 통한 사회내의 “비판 세력의 약화와 그에 따른 보수 우익의 발호”에 대해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도표-3〉 신문들의 '박흥 총장 발언' 보도 경향 및 추이



Ⅲ. '박홍 총장 발언' 신문 보도에 따른 행위주 분석  
 박홍 총장 발언에 대한 신문 보도와 관련된 행위주들과의 관계  
 는 <도표-4>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다.

<도표-4> 신문 보도에 따른 행위주 분석



<도표-4>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즉 주체는 '박홍 총장'이며, 이에 대한 '신문의 부각'이고, 이에 대한 대상으로 '주사파 존재의 확인' '주사파와 친북과의 연계' 및 '주사파의 척결'을 들 수 있다.

주체에 대한 협조자나 지지자로서 '전국 20여 개대 대학 총장' '서강대 경영대 교수' '서강대 동문' '서울·조선·중앙·동아의 4개 신문' 등을 들 수 있다. 즉 이들은 박홍 총장을 '용기 있는 지

식인' '옳은 말을 한 지식인' 등으로 규정하고, 나아가 박홍 총장의 발언을 '용기 있는 행위'와 '지식인의 책임 있는 행위'로 간주하고 박홍 총장을 지지하고 있다.

한편, 박홍 총장에 대한 반대자로 '한총련' '정의구현사제단' '재야 세력' 및 '한겨레신문'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박홍 총장을 '무책임하고' '무지와 편견'의 인물로 간주하고, 그의 발언을 '무책임한 행동'으로 그리고 '비지성적 행동'으로 규정하고, '내용에 있어서의 증거 불충분'을 근간으로 하여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다.

대상과 관련되어서는 이러한 대상을 생성케 한 발송자로는 '대통령과의 오찬'을 들 수 있고, 바로 이러한 발송적 성격으로 인해 '박홍 총장의 발언'의 진의에 대해 의심하게 된다. 즉 박홍 총장의 발언이 다른 곳이 아닌, '대통령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제기되었다고 하는 의미는, 그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간에, 그의 발언의 성격을 친정부적·친보수적이라고 평가하게 되는 연원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대상으로 인한 수혜로는 사회내에 '친북적 사상 이념을 척결하고,' 나아가 '혁신 및 진보 세력을 약화시키고,' 따라서 '보수·우익으로 회귀'하게 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이념 논쟁에서 '반공산주의'를 근거로 친북적 성향이나 그와 관련된 진보 세력을 약화시키게 되고, 나아가 사회내에 우익 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적 경향을 사회의 주요 이념으로 다시 등장시켜 고착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 4. 결 론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해 '박홍 총장의 발언'은 그 발언 자체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도 있지만, 그의 발언과 관련된 우리 신문들의

‘보도’에 의해 그 성격이 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겨레 신문을 제외한 서울·조선·중앙·동아 등 4개 신문들은, 박홍 총장의 발언을 추호의 의문이나 단 한 번의 문제 제기 없이 ‘용기 있는 행위’로 받아들임으로써 자신들이 지닌 이념적 성향을 명확히 드러냈다.

〈도표-5〉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박홍 총장의 발언 및 행위를 ‘용기 있는 행위’ ‘사심 없는 행위’ ‘바른말 곧은 소리’ ‘명예를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결단에 찬 발언’ ‘시대적 요구의 한 표현’ ‘양식 있는 행동’으로 규정하면서, 그의 발언 및 담고 있는 내용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러한 규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박하거나 문제시하는 견해나 표명들을 ‘운동권의 편승자’ ‘주사파 옹호자’ ‘친북주의자’ ‘김일성주의자’ ‘직무 유기자’ ‘불건전한 진보(용공) 세력의 소리’라고 치부해버리고, 다양한 기사 양태들 속에서 이들에 대해 반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겨레신문은 박홍 총장의 발언을 ‘무책임하고’ ‘편견과 무지에 의해 나타난 행동’으로 규정하고, 지성인이 지녀야 할 책임성과 대학 총장이 지녀야 하는 신중성을 지니지 못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박홍 총장 발언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 표명은 박홍 총장 발언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한 신뢰에까지 이어져서, 4개 신문들은 그들 내용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데 비해서, 한겨레신문은 그 내용이 지니고 있는 부당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내용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으로 인하여, 4개 신문들은 그 내용이 담고 있는 대로, 주사파가 북한의 지시 및 지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게 되며, 나아가 이러한 제재에 지금껏 침묵으로 일관해온 ‘보수·우익’ 세력들이 제 목소리를 내줄 것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한겨레신문은 그 내용 자체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

〈도표-5〉 4개 신문들의 박흥 총장 발언과 관련된 이분적 분류

박흥 총장 발언 지지	박흥 총장 발언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기 있는 행동</li> <li>· 사심 없는 직무 수행</li> <li>· 지성인의 올바른 행동</li> <li>· 양식 있는 지식인의 행동</li> <li>· 바른말 곧은 소리</li> <li>· 명예를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결단에 찬 소리</li> <li>· 시대적 요구의 한 표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굴한 행동</li> <li>· 직무 유기적 행동</li> <li>· 불전전한 진보(용공) 세력의 소리</li> <li>· 비양식적 행동</li> <li>· 운동권의 편승자의 행동</li> <li>· 친북주의자의 소리</li> <li>· 김일성주의자의 소리</li> </ul>

자체에 대한 비판이나 문제 제기보다는,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배경과 이러한 배경을 기점으로 한 보수·우익 세력의 준동을 경계하게 되며, 나아가 사회가 다시금 ‘공안 정국’으로 빠져들게 되는 데 대해 우려하게 된다.

이렇듯이, 우리 신문들은 ‘박흥 총장 발언’ 사안에 대해서는 그들이 항상 주장하던, ‘객관 보도’ ‘공정 보도’ ‘중립 보도’ ‘불편 부당 보도’ 등과 같은 일반 보도 원칙들을 전혀 따르지 않았으며, 나아가 이러한 원칙들을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다루고 있었다. 그 대신 4개 신문들은 박흥 총장의 발언을 이념적(이데올로기적)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기본 이념적 편향에 따라, ‘보수·우익의 입장’을 견지하며 ‘진보·개혁 세력’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한겨레신문도 이들과는 다르지만 진보·개혁의 이념적 입장에서 박흥 총장의 발언을 평가하며, 그것이 낳은 ‘신공안 정국의 등장’과, 그로 인한 ‘우익·보수 세력’으로의 회귀’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한겨레신문보다는 이들 4개 신문들이 우리 사회의 여론을 주도하는 거대 신문들로서, 박홍 총장 발언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있다. 즉 이들 4개 신문들의 취급 경향이 그대로 우리 사회의 일반화된 보편적 인식으로 자리잡게 된다는 점이다.

이를 실제적으로 반영하듯, 우리 사회에서는 박홍 총장 발언을 계기로 하여 대학의 ‘주사파’에 대해 우려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이들이 북의 김정일의 지시 및 지령을 받는다는 지적은 사회내에 커다란 충격 및 우려를 낳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반인들은 정부 및 검찰에 이들을 검거해줄 것과 나아가 북한의 조종을 철저하게 막아달라는 식의 요구를 표출하게 되었고, 사회내의 이념적 방향을 ‘반공산주의’로 명확하게 자리지을 것과, 보수·우익 세력의 등장을 소망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내의 진보 세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퍼져나가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우리 신문들은 박홍 총장의 발언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일반 보도 원칙들을 지키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입장 및 관점에 따라 편향되고 불균등하게 보도하였고, 나아가 자신들의 시각이나 관점을 반영시키거나 관철시키고자 노력하였던 것이다.

[경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참 고 문 헌

- 김동규, 「대중 매체의 언론 활동 양식에 관한 연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1.
- 김승현, 「대중 매체와 지배 이데올로기 재생산」, 『커뮤니케이션 과학』 제10호, 고려대 신문방송연구소, 1990, pp. 1~25.
- 김희영, 「이야기의 기호학적 분석: 그 이론과 적용」, 『세계의 문학』,

- 1991년 겨울호, pp. 220~34.
- 나미수, 「신문 보도의 현실 구성에 관한 담론 분석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1991.
- 백선기, 「한국 신문의 '실명제' 보도에 대한 의미 구조 연구」, 『언론과 사회』 제4호, 1994, pp. 101~37.
- , 「한국 신문의 '노사 분규' 보도에 대한 보도 태도와 그 이념적 의미: 신문 보도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 언론 학보』 제29호, 1993, pp. 173~228.
- , 「한국 신문의 공정성에 관한 연구: '정총리 서리 폭행 사건' 보도에 관한 기호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와 언론: '포스트' 시대의 비판언론학』, 1992, pp. 181~246.
- , 「한국 신문의 '학생 가두 시위'에 관한 보도 태도와 그 이념적 배경: 동아·서울신문의 '5·17 사태' 보도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신문연구소 학보』 제26집, 서울대 신문연구소, 1989, pp. 115~53.
- 백선기·박기순, 「보도·담론·함축 의미: '부산 기관장 모임' 담론의 의미 구조 분석」, 『한국 언론 학보』 제31호, 1994, pp. 143~94.
- 이호백, 「신문 뉴스의 이미지와 뉴스 담화 분석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7.
- 정지영, 「신문 기사와 독자의 해독에 관한 연구: 논의를 분석을 통한 일고찰」,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 논문, 1988.
- J. Courtes(오원교 역), 『담화 분석을 위한 기호학 입문: 방법론과 적용』, 신아사, 1986.
- R. Hawkes(오원교 역), 『구조주의와 기호학』, 신아사, 1982.